

나의 할머니의 기도

윤 남 경(소설가)

나의 할머니는 자녀를 9명이나 키웠다. 낳기는 16명을 낳았지만 어릴 때 병으로 혹은 다 커서 세상을 뜬 사람도 있고해서 아들 여섯, 딸 셋만 남은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8형제시기에 대부분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을 대신해 그 자녀들의 서울에서의 공부는 다 우리 집에서 다녔다. 거기에 딸려있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쳐서 보통 30명이 한 집에서 들끓었던 것이다. 거기다 뒷채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사랑채에는 늘 할아버지 손님들(주로 교회손님이나 목사님들)이 주무셨고 시골에서 우리 교회로 집회를 인도하러 오신 강사님은 으레히 우리 집에 주무시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할머니는 그 많은 식구들 뒷바라지를 묵묵히 그리고 거뜰히 해내셨다.

어느 날, 할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증조할머니의 복숭아 뼈가 끊기 시작했다. 그것을 집에서 고약만 말라도 낫지 않고 점점 깊이 끊어 들어가자 의사를 불러 보여주었더니 너무 늦어 발목부터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니면 누군가 끊은 곳을 입으로 빨면 된다고 했다. 여덟명의 자녀 중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을 때 우리 할머니는 자신이 하겠다고 선뜻 나섰다. 그리고는 매일 복숭아 뼈의 고름을 빨아서 뺀고 하기를 여러 날, 한번도 쩡그리거나 투덜거리는 일도 없이 으레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다는 표정으로 꾸준히 빨아 낸 결과 어느 날 근이 썩 빠졌다고 모두들 환성을 질렀다. 할머니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었을 일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새로 신은 버선 발바닥이 저녁때가 되면 마치 가죽을 댄 듯이 딱딱하고 반들반들해 지도록 그 넓은 집안을 할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뛰어 다니셔야만 했기에 밤이 되면 두 손을 짝악 벌리고 KO당한 사람처럼 누워서 꼼짝도 못하셨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손자녀인 우리가 다니던 초등 학교에 때때로 오셔서 조회시간에 서있는 우리를 보고는 좋아하시곤 하셨다. 그 많은 손주들중 한 아이는 학교 가기 싫다고 늘 마루 밑바닥에 숨곤 했다. 그러면 회초리를 들고 그 아이를 꼬집어내어 기어코 학교까지 데리고 가시곤 했다. 나는 늘 할머니 곁에서 자곤 했는데 할머니는 잠들기 전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기도를 하셨기에 나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먼저 잠이 들곤 했다. 그 많은 손주들 이름을 한사람씩 불러가며 기도하자니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 기도 덕택에 큰아들은 대통령이 됐고(윤보선 씨) 자녀들은 믿음 좋은 식구들로 장성했으니 나는 지금도 할머니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를 하면서 나는 그만큼 못하고 있는 것을 자책하고 있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2권 4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11월12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겁주는 것이 싫어!

Q) 몇 번 교회가 보았는데 그때마다 인간의 완벽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 겁주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라고 합니다. 세상엔 더 재미있는 곳이 많은데 내가 왜 교회 가서 죄인이란 소리를 들어야합니까?

A) 사실 교회는 불링장만큼 재미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젊음을 즐기기도는 젊음의 미완성됨을 성찰하고 미래와 영생을 위해 보다 나은 영적 삶을 모색, 추구, 지향하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불링장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식생활과 비유하면 설탕과 소금의 역할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책으로 치자면 그것은 칭찬의 말과 충고의 말씀의 차이입니다.. 과연 우리가 재미를 위해 평생동안 설탕만 먹으면서, 또 만화책만 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반문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있어 평생동안 칭찬의 말을 듣고 살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찾는 목적이 설탕이나 만화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금, 충고, 또는 자기를 돌아보는데 있던 생각도 한 번쯤 아울러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의 재미없음'보다 우리 시대의 즉물적 쾌락지상주의에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보다 본질적인 면까지 함께 반성하게 되는군요.

교회는 자기의 재미나 쾌락을 앞세워 젊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언젠가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쓴 약을 마시게 될 때, 왜 약은 설탕처럼 달지 않고 써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재미를 교회에서 찾으려지 말고 교회에서 만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나름대로의 성격이나 설교 습관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때론 설탕 같은 위로의 말씀과 소금 같은 쓴 말씀으로 건강한 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7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9 (시 23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41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조순정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고후 4:7-11

아 동 부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부부성가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설 교  
Sermon

질그릇 같이 연약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94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수요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 교 회 소 식

### 1.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다음주일에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11월 현재: 창세기 9명 출애굽기:7명 레위기:2명 민수기:2명 신명기:2명

### 2. 장년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3기)

\*일시: 11월 14(화) 저녁 7:30

\*장소: 노은숙 집사 가정

95A Eban Ave. Hillcres. ☎ 418-3679

\*대상: 등록번호 10번 이후부터(김시욱.장선주.김교섭.정희자.김중암.한은섭.  
김영길.신경화.이정수.최재학.노은숙)

### 3."Christmas in Calvary"을 위한 성가대 칸타타 연습

\*매 금요일 저녁 7:30 \*장소: Adria

### 4.추수감사주일(예고)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감사주일특별헌금은 없습니다. 매월 드린 '이삭줍기'헌금이 감사주일헌금입니다  
1년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으로 자녀들과 함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가정 "2분기도"

\*"약속의 아버지"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과 함께 "2분"기도를 실  
천사항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 6.11월의 교회력

\*7.14.21(화)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

\*3일 이후(매 금요일).칸타타 연습

\*19(주일)                    감사주일

## < 11월 예배 위원 >

일 자	헌금위원	기 도	teatime봉사
11/5일	김시욱.장선주	김 영 길	최윤호, 한 건
12	이선우.조순정	조 순 정	김성국.변지용
19일	지윤수.김 효	노 은 숙	이경석.이선우
26일	김교섭.정희자	송 정 섭	김교섭.김효권